현대소설연구(제7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12.76.245

『월간야담』의 여류 야담가의 정체와 전통적 글쓰기의 의미

진 선 영*

요약

본고는 장덕조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 시원을 식민지 시기 발표한 야담에까지 역상하였다. 장덕조가 식민지 시기 발표한 소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성의 생활과 감정에 밀착되어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서사화한 단편소설의 수만큼이나 『월간야담』에 발표한 야담의 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여자전문 졸업, 여기자, 여류작가 등 당시 근대성의 지표를 배지처럼 달고, 전형적인 인텔리성과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을 썼던, 20세 전후의 장덕조는, 왜 야담을 쓰게 되었을까. 이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장덕조가 『월간야담』에서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다작의 야담작가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보다 작품 수가 많은 춘금여사, 일파 모두 장덕조의 필명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월간야담』에서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많은 야담을 집필한 작가는 장덕조인 것이다.

장덕조 야담의 특징은 연애물의 비중이 확연히 높고 그 이야기적 성취도도 높다는 것이다. 장덕조의 야담은 확실한 이야기성과 로맨틱한 필치로 대중들의 심금을 건드릴 뿐 아니라 한편으로 죄와 악을 징계하고 의와 선을 취득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대중의 가슴을 태우고 주먹을 쥐게 하는 야담들이다. 아름답고 비극적인 장덕조의 로맨스 야담은 장덕조가 1950년대 이후 펼쳐 놓은 대중연애소설과 멜로풍 역사소설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장덕조는 아씨라고 불리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역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유교주의적 세례를 받은 유년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야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단편소설 또한 전통적 젠더 역할론에 기반을 두고 있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으며 작가의 삶 또한 문학세계와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 결혼 이후 원고료로써 호구지책을 해결하려했던 뼈아픈 속사정은 다작의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는 전통과 근대의 패러다임이 충돌 길항하는 시대였고 장덕조는 신여성 담론을 생산해 내는 대중지의 일원으로 출발하였지만 야담 쓰기를 통해 한문세대의 문화 활동에도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장덕조, 춘금여사, 일파, 월간야담, 여류 야담가, 전통적 글쓰기

목차

1. 들어가며
2. 『월간야담』의 여류 야담가의 정체
3. 장덕조 야담의 갈래적 특성
4. 장덕조 야담 창작의 의미
5. 나오며

1. 들어가며

본 논문의 출발은 여성작가 장덕조에 대한 관심에서이다. 최근 장덕조 관련 선행연구는 10년의 간격을 두고 두 편의 박사학위 논문[1)]이 산출되면서 통시적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개별 작품론이 행간을 보충하며 풍성한 결과를 집적하고 있다. 장덕조 소설의 연구 결과가 누적된 만큼 소설적 경향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덕조의 초기소설은 등단한 1932년부터 1940년대까지 각종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것으로 약 30여 편 가량이다. 식민지 시기 장덕조 소설은 작

1)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가의 경험적 일상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면서 일상적, 가정적, 여성주의적 제재가 주류를 이루었고 1930년대 신가정의 윤리를 구축하면서 일탈한 혼인 양상을 아이러니를 통해 꼬집었다. 1930년대를 살았던 다양한 식민지 여성들의 삶을 가장 여성적인 주제로 풀어낸 장덕조는 그러므로 제2세대 여성작가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2)]

장덕조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집중적으로 「새로운 군상」, 「행로」 등 친일 성향의 작품을 발표했다. 『방송소설명작선』에 실린 「우후청천」과 「연화촌」은 애국반 활동이나 '군국의 어머니' 등 일제 말기 총후부인에게 부과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후방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전쟁 중에는 여성작가 최초로 육군 소속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전선문학』에 반공소설과 수필을 발표하고, 강연회에서 소설 낭독과 문인극 공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일제 말기와 한국전쟁 중 장덕조의 문학이 지배담론에 호응하려 했던 여성 지식인의 의도적 글쓰기였다는 혐의는 국가주의에 동원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된다.[3)]

한국전쟁 이후에는 대중적 취향(연애소설, 역사소설)의 신문연재소설을 집필하였다. 장덕조의 작가적 신분이 확립된 것은 이 시기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대중소설 인기의 '빅3'였던 정비석, 김내성, 박계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장덕조는 1950년대 당시 인기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신문소설을 가장 많이 연재한 여성작가로서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연애를 통

2)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회, 2012, 485-516면.

3) 김동현, 「"국민"의 상상과 "비국민"의 기억-장덕조의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과 해방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31-55면.
김양선,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제3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257-276면.
박필현, 「국가주의적 젠더정체, 모성의 호명과 주체화의 욕망:해방기 장덕조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265-289면.
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연구회, 2012, 267-288면.

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상징적으로 포착한 반면 소설이 획득한 독특한 사랑의 양상을 대중연애소설의 전형적 결말 구도로 귀결시키면서 대중연애소설의 관습성을 지속시켰다.[4)]

오늘날 장덕조는 당시를 추억하는 대중들에게 역사소설가로 각인되어 있다. 작가는 대중연애소설을 쓰던 시기에 역사소설도 같이 집필하였는데 『광풍』, 『낙화암』, 『벽오동 심은 뜻은』, 『이조의 여인들』 등과 같은 여성이 주인공인 장편 역사소설을 주로 집필하였다. 다작의 작가로 유명한 장덕조는 70대 중반이던 1989년에도 방대한 분량의 대하소설 『고려왕조 5백년』을 출간할 정도로 노년에도 역사소설 창작에 몰두했다. 장덕조의 역사소설은 독창적인 주제의식이나 사상성보다는 재미있는 스토리 전개에 중점을 두어 대중적인 흥미를 충족시켰고 독자들은 여성 암투적인 역사소설에 깊이 빨려 들어갔다.[5)] 2007년 조리가 박사논문에서 장덕조의 역사소설을 언급한 후 역사소설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지만 장덕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작품의 통시성으로 분류하였을 때 향후 장덕조의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 또한 장덕조가 이룩한 넓고 깊은 작품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덕조의 역사소설에 대해 관심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덕조 역사소설이 다른 남성작가의 역사소설과 다른 여성주의적 역사소설이며 가정서사를 역사 안으로 편입시켜 여성의 기다림과 희생을 부각시켜서 역사를 여성의 수난사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던 장덕조의 초

4) 김윤서,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고찰」, 『우리말글』 81, 우리말글학회, 2019, 273-299면.
진선영, 「1950년대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격랑』(1957)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15-341면.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다정도 병이련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139-163면.

5)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171면.

기소설의 세계가 역사로 확장된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전쟁기 역사소설의 원류를 식민지 시기 발표한 장덕조의 첫 역사소설인 「한야월」로 거슬러 올라가기 적합한 이유가 될 것이다.

장덕조가 식민지 시기 발표한 소설을 정리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식민지 여성의 생활과 감정에 밀착되어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서사화한 단편소설의 수만큼이나 『월간야담』에 발표한 야담의 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장덕조의 야담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권기성의 연구는 본 논문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권기성은 근대 야담 연구가 '대중'과 '통속'이라는 전제로 쉬이 귀결되면서 개별 작가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미흡하다는 전제하에 그 대표적 사례로 장덕조를 언급한다. 장덕조가 『월간야담』에 가장 많은 글을 기고하면서 주도적 집필진이 되었고, 고전적 세계관을 전유하여 재현하면서 자신만의 문학적 특색을 드러내었다는 점은 본고의 주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6] 하지만 권기성의 언급처럼 장덕조의 야담이 장덕조의 삶과 문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한다면 이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야담과 역사소설의 인접성을 가늠해 보더라도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역사소설 집필의 긴 도정은 이미 식민지 시기 작가의 20대부터 배태되어 있던 '재래의 이야기성'에 그 시원을 둘 수 있다.

이화여전 출신의 모던 걸, 『개벽』의 여류기자, 제2기 여성작가군의 대표, 이 모든 '근대적' 수식어와 함께 '여성 야담가'를 접목하는 행위는 이질적이어서 놀라운, 확정된 근대를 파고드는 균열과 틈을 엿보는 것 같다. 장덕조의 작품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한 여성작가의 작품을 관통하는 '작가성'에 대한 탐구이자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질문이 될 것이다.

6) 권기성, 「근대 야담 작가 연구의 외연 확장과 신선의 전환-『월간야담』의 작가군과 '장덕조'」, 『동반한문학』80, 동방한문학회, 241-275면.

2. 『월간야담』의 여류 야담가의 정체

야담은 주로 조선후기에 한문으로 기록된, 비교적 짤막한 길이의 잡다한 이야기들의 총칭이다. 야담 안에는 전설, 민담, 소화, 일화, 야사 등 설화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소설적인 것도 있으니 복합적인 갈래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내용 또한 매우 다채롭다. 야담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화를 한문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으며 한문문학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구실을 하였다. 이처럼 전근대적 성격을 지닌 야담은 1930년대 근대적 매체가 야담을 대중서사로 흡수하면서 근대 독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된다.

1934년 10월 10일자로 윤백남에 의해 창간된 최초의 야담잡지 『월간야담』은 그 제호에서 알 수 있듯이 야담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잡지였다. 1939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총 55호가 발행되었고 총 500편에 가까운 야담이 실렸으며 권당 10,000여부가 팔리는 등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월간야담』이 발행된 1934년은 역사물이 범람하던 시기로 비단 야담 뿐 아니라 '과거' 및 '조선적인 것'을 소재로 하는 많은 양식들이 유행하였고 '전통과 복고 바람'과 '사화(史話)와 역사소설의 지속적인 인기'라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소설 수용 양상으로 그 인기가 지속되었다.[7]

민중오락으로서의 야담은 '민중'에 방점을 찍게 되면 민중교화운동으로서의 야담의 성격을 지니지만 '오락'에 주안점을 둘 경우 새로운 공연문화이자 즐길거리로서의 야담이 나타난다. 1920년대 후반에 있어 야담은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두 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 들어와 야담은 급속도로 대중화하고 상업화된다. 이 과정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인 것이 윤백남이었고 『월간야담』이었다.[8]

7) 김윤회, 「『월간야담』에 나타난 야담의 양상과 대중서사로서의 의의」, 고려대 석사논문, 2012, 11-12면.

『월간야담』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취미독물'만을 모아놓았다는 점, 의식적으로 논설과 뉴스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월간야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월간야담』은 역사성을 내재한 야담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독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야담을 취급하고자 했다. 역사를 흥미 위주로 편집하거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는 선에서 그쳤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진 야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시대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하고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월간야담』의 작가층을 보면 양백화(33회), 윤백남(22회), 신정언(19회), 연성흠(19회), 윤효정(17회), 장덕조(17회), 춘금여사(17회) 등이 필자로 참여하였고 연호당(延皓堂), 만년청(萬年靑), 김초(金草), 구송(丘松), 일파(一波) 등 익명의 필자도 자주 눈에 띈다.[9] 가장 많은 야담을 연재한 양백화는 양건식으로 중국야담을 게재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고, 윤백남은 잡지의 발행인이자 책임편집자로서 『월간야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글을 기고한 필자였다. 신정언은 윤백남과 더불어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야담가였으며, 연성흠은 본명 외에 연호당(延皓堂)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아동 잡지에 주로 글을 기고했던 아동문학작가이다. 윤효정은 한말의 정치가이자 애국지사로 본명 외에 소운거사(紹雲居士)라는 필명을 썼다.

연구자의 시선에 따라 집필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목록에서 확인되는 두 명의 여성작가(장덕조, 춘금여사)에 대한 궁금증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월간야담』의 집필진

8) 유인혁, 「〈월간야담〉 연구 : 1930년대 야담과 '조선적인 것'의 대중화」, 동국대 석사논문, 2010, 43면.

9) 『월간야담』의 집필진에 관한 자료는 김윤회와 유인혁의 논문을 참고하였는데 연재횟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상위권 순위에 올라있는 필자는 거개가 동일하다.

구성이나 개별 작가층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기에 대부분의 작가나 그 필명이 확정되어 주요 필진의 위용이 확인된다. 김윤회의 논문에도 야담 작가 장덕조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진다.[10)]

특히 1950년대 이후 장덕조가 신문연재 대중소설, 역사소설을 주로 집필하였다는 정보는 식민지 시기 지속적으로 야담을 창작했다는 것과 서사적 친연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장덕조가 『월간야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다작의 야담작가였다는 사실도 놀랍고, 장덕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속적으로 야담을 창작했던 '춘금여사'의 실체 또한 놀랍다. 하지만 장덕조에 대해서는 소략이나마 정보가 제공된 반면 그 어느 관련 연구에서도 춘금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의아한 점이다. 다른 남성 야담가의 경우, 김안서, 방인근, 박영호, 윤승한 등은 게재한 횟수는 적으나 주목할 만한 작가로 언급되면서 작가들의 개별적 특성을 변별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월간야담』의 대중성과 상업성을 다채로운 필진 구성에 기대고 있는 제반 연구에서 춘금여사에 대한 '의도적' 누락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월간야담』의 작가층만을 따로 떼어 연구한 신상필의 논문을 보충해 보자. 『월간야담』의 작가층 분석을 통해 독창적인 야담 작가군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 새로운 문학현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신상필은 『월간야담』을 주요 작가군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1년 6개월의 주기로 나누어 볼 때 각 작가군마다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11)]

10) 김윤회, 앞의 논문, 18-19면.

11) 신상필, 「야담 전문잡지 『월간야담』·『야담』의 운영과 작가층의 구성 양상」, 『남명학연구』 53집, 경남문화원, 2013, 205-230면.

분기	1기	2기	3기
한국야담	신정언	신청거	연성흠
	윤백남	일파	일파
	김동인	장덕조	장덕조
	소운거사	춘금여사	윤승한
중국/일본 서사 및 역사	양백화	양백화	양백화
장/단편 한국역사		홍효민	윤효정, 김초

위 표에서 볼 때 한국야담을 담당한 인물들이 잡지의 주력 필진이었다. 이들은 한국 고전 야담의 소재를 발굴하여 단편의 일회 분량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조선 재래의 이야기를 근대 대중들에게 국문으로 소개함으로써 야담 잡지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한 작가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야담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앞서 김윤회의 논문과 필진이 거의 중첩되는데 유일하게 '일파(一波)'라는 이름만이 새로 추가된다. 신상필의 논문에 따르면 일파는 22편으로 가장 많이 연재한 윤효정에 뒤를 이어 21편의 야담을 연재한 작가로 『월간야담』의 2기와 3기를 이어주는 주요 필진이다. 실제 잡지를 확인해 보아도 일파의 이름과 작품이 확인되는데 김윤회의 논문에 일파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 의아하다. 신상필의 논문에서도 양백화, 신정언, 윤백남, 김동인 정도만의 필진이 상세 서술될 뿐 앞서 주목한 춘금여사나 일파에 대한 서술은 발견할 수 없다.

본고는 장덕조의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 서사성의 시원을 식민지 시기 발표한 야담쓰기에 두었다. 이는 195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덕조 역사소설에 대한 효과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뿐더러, 먼 시간을 거슬러 식민지 시기 야담의 성행이라는 문학적 현상에 대해 '신' '여성' 작가의 집필이 새롭고 의미 있는 해석의 지점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곁가지처럼 보이는, 『월간야담』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요 필진에 대해 집착한 이유는 물론

장덕조에 기인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여성인물사전』을 참고해 보자.

> 장덕조(張德祚 · 1914~2003)는 1914년 10월 13일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인동(仁同), 필명은 춘금여사(春琴女史), 일파(一波), 노노자(怒怒子) 등이다.[12]

『월간야담』의 많은 작가들은 본명과 필명을 혼용하여 야담을 게재하였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했다. 이러한 이유로 필명이 확인되지 않은 작가, 특히 많은 야담을 연재하였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춘금여사와 일파와 관한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금여사와 일파 모두 장덕조의 필명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덕조는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으로 『개벽』의 부인기자로 활동하였고 제2기 여성문단을 대표하는 여류작가이다. 당시 『월간야담』에 조선 재래의 이야기를 쓰던 춘금여사, 일파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월간야담』에서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많은 야담을 집필한 작가는 장덕조이다. 또한 『월간야담』이 창간된 이듬해부터 야담 창작을 시작하였으니 1기에서부터 3기까지 전 시기를 아우르는 것 또한 장덕조가 유일하다. 이는 장덕조의 야담을 중심으로 『월간야담』의 잡지적 성격을 재해석할 수도 있는 기반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월간야담』에 본명(장덕조)과 필명(춘금여사, 일파)으로 실린 야담의 전모를 확인해 보고 그 갈래적 특성을 파악해 보자.

12) 김양선, 「[한국여성인물사전] 장덕조」, 『이투데이』, 2017.11.29. 간혹 일파의 한자어가 '一派'로 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3. 장덕조 야담의 갈래적 특성

장덕조가『월간야담』에 본명과 필명으로 연재한 야담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13)]

연재지면	장덕조	춘금여사	일파/일파생
6호, 1935.3.			표지
7호, 1935.4.			표지
8호, 1935.5.			표지
9호, 1935.6.			표지
10호, 1935.7.			시조십수(時調十首)
11호, 1935.8.			구회(口繪)
12호, 1935.9.	때는 눈앞에(전편)		표지
13호, 1935.11.	광란의 무희 (때는 눈앞에 후편)		표지
14호, 1935.12.	미녀와 비련		표지
15호, 1936.1.	조반의 비애	상사몽	표지
17호, 1936.3.	만파식적	춘소감별	표지
19호, 1936.6.	벌수발복		표지
20호, 1936.7.	기인 김진사	충효	표지
21호, 1936.8.	금주삽화	용강의 어옹	표지, 피 묻은 부채
22호, 1936.9.	돈 잘 쓰는 사위	몽조	표지
23호, 1936.10.	솥 속에 돈 꾸러미	두 친구	표지, 여색화인
24호, 1936.11.	머리위에 도끼날	열열장부	해묵오백동
25호, 1936.12.	문장수난	인색한 장인	교동의 운성

13) 이 시기 장덕조는『월간야담』뿐 아니라『매일신보』에도 많은 야담을 발표하였다.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청(日精)・월정(月精)」,『매일신보』, 1936.4.9.
「영오(迎烏)와 세오(細烏)」,『매일신보』, 1936.4.16.
「자겸(子謙)과 청음(淸陰)」,『매일신보』, 1936.8.5-15.
「기연(奇緣)」,『매일신보』, 1936.8.27-9.10.
「파동」,『야담』, 1939.6.

27호, 1937.2.	순정의 호떡 두 개	기지가 활인	보수
28호, 1937.3.			충복설원
29호, 1937.4.	맹부를 구출코저	패낭의 비상	허실
30호, 1937.5.	옥봉애가	묘상의 광객	표지, 벌레 먹은 떡잎
31호, 1937.6.	양봉승공	미녀대평기	고도의 의인
32호, 1937.7.		결사고충:노환 김처선	비상유언:여배물복과거
33호, 1937.8.	원앙가연:의사요확탄	혈루애화:정녀 홍루몽	표지
34호, 1937.9.			유협백수
35호, 1937.11.		벽오동 심은 뜻은	
36호, 1937.12.		장력당이문	
37호, 1938.1.		의기남아:숙명? 인연?	
38호, 1938.2.			
39호, 1938.3.		신문	표지
40호, 1938.4.			
41호, 1938.5.		지성달의:감천의 정성	
42호, 1938.6.			
43호, 1938.7.			친구와 돈 석량
44호, 1938.8.			목은의 사희시, 빈군수득전법
45호, 1938.10.			하담의 강정
46호, 1939.1.			풍연전
47호, 1939.2.			
48호, 1939.3.			관중장물
49호, 1939.4.			
50호, 1939.5.			묘공보은
51호, 1939.6.			
52호, 1939.7.			
53호, 1939.8.			단편물: 시하관오시발복
54호, 1939.9.			
55호, 1939.10			충혼의 죽엽

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월간야담』에 장덕조의 이름으로 발표된 야담은 17편, 춘금여사는 18편, 일파는 19편으로 총 54편의 야담을 연재하였다.[14] 21호에서부터 31호까지는 본명과 필명을 뒤섞어 같은 호에 3편을 동시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누어 보면 총 55호까지 출간된 『월간야담』에서 단 1호를 제외하고는 야담을 발표한 격이다. 작가가 품고 있는 다종다양한 이야기성이 놀랍고 이를 꾸준히 잡지의 지면으로 토해낸 작가의 지구력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김윤회는 『월간야담』에 연재한 야담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규범화된 의식(전근대적 가치로서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긍정)의 추구, 둘째 과거를 비극적으로 이미지화(반역, 혁명, 전쟁, 자결), 셋째 과거의 역사를 여성들의 역사로 치환하고 근대여성보다는 전통여성을 선호하며 그들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위 세 가지 양상 틀로 장덕조 야담을 분류해 보면 상당 부분 일치한다.[15] 장덕조의 첫 야담인 「때는 눈앞에」는 단편의 일회 분량으로 연재된 이후 야담과는 달리 2호에 걸쳐 전편, 후편으로 연재되었다. 전편은 왕에게 충성하였으나 모략으로 내쳐짐을 당한 김형과 간사한 모략가 김성의 대결을 통해 목숨을 걸고 임금에 충성을 맹세하는 유교 윤리를 담고 있다면, 후편은 김형의 딸 매영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임금 앞에 서나 결국 원수를 갚지 못하고 광녀가 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이 야담은 김윤회가 정리한 『월간야담』에 연재된 야담의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성군 신문왕과 충신 김유신이 함께 만파식적을 얻게 되는 경위

14) 표에 보면 새로운 점이 눈에 띄는데, 일파의 이름으로 표지가 작성된 것이다. 잡지의 목차에 '표지 : 일파(一波)'로 게재되어 있다. 55호까지 두루 살펴보면 표지는 일파, 이경근, 편집실이 나누어 그렸는데 일파와 이경근의 표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경근은 『월간야담』의 삽화를 도맡아 그렸는데 이러한 이유로 거의가 인물화 위주의 표지를 그렸다. 반면 일파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취했는데, 대나무, 난, 꽃, 새 등을 주로 그렸다.

15) 이후 분석되는 장덕조 야담의 출처는 위의 표의 내용으로 대신한다.

를 다룬 「만파식적」, 양녕대군의 종실후손 이지광이 세상의 이욕과 명예를 등지고 선묘를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과 그 보상을 다룬 「벌수발복」, 서민으로부터 몸을 일으켜 병수사 북병사의 고관에 오른 명장 덕봉, 서봉의 출세담 「양봉승공」, 올곧고 충직한 이항복과 그의 장인 권율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춘금여사의 「열열장부」 등은 모두 부부, 군신 노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유교 윤리를 권유하는 '건전한 야담'이다.

군에 대한 신의 충성, 주에 대한 노의 충직함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한다. 이러한 일정함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충신들의 올곧은 절개는 서사 내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올곧은, 전통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효, 의리, 인정, 정직, 용기, 선과 의 등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그리기도 한다. 「맹부를 구출코저」는 심청전의 다른 버전인데,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는 귀덕이라는 효녀의 이야기이다. 가난한 집 딸 귀덕이는 아버지의 권유로 부잣집에 시집가게 되지만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갖은 고생을 한다.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귀덕이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아내지만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의 이기적인 태도에 질려 남편에게 이혼을 청하고 친정으로 가게 된다. 결국 귀덕이의 봉양으로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고 효녀 표상을 받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부부간의 정의와 윤리를 다루고 있는 「금주삽화」, 보은(報恩)의 의미를 되새기는 「돈 잘 쓰는 사위」, 도적이 소저의 높은 절개에 감심하여 훔친 돈을 두고 간다는 「솥 속에 돈 꾸러미」 등이 그 예이다. 임경업 장군이 호랑이를 잡은 춘금여사의 「감천의 정성」 , 검약(儉約)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옛 이야기를 끌어내어 들려주는 「인색한 장인」, "옛날에도 옛날"로 시작하는 고담(古談)인 일파의 「묘공보은」은 우직하고 인정 많은 나무꾼 고두쇠에게 은혜 갚은 토끼의 이야기로 악의 징치와 선의 승리 속에서

'보은(報恩)'의 의미를 되새긴다.

장덕조의 야담에는 기인들(역사 속 기인들, 김진사, 홍노인, 거지 사위, 암행어사 등)이 많이 등장하는데 세속적 욕망을 따르는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정의와 도덕, 올곧음과 절개, 바른 이치를 지키기에 범인(凡人)과 다른 기인으로 취급된다. 기인들의 별나고 수상한 행적은 세상의 풍속을 거스르지만 그 거스름은 지조와 절개 때문이다. 이들의 괴이한 행적은 역사의 숨은 이면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권선징악의 정서, 의로운 인물과 탐관오리의 대비를 통해 정과 의라고 하는 윤리적 감각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춘금여사의 「묘상의 광객」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세속을 등지는 김시습이 등장한다. 김시습이 속세를 떠나는 날 친구 조려의 딸이 태어나고 조려는 자신이 죽으면 딸을 꼭 시습이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김시습은 부조리한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미친 것처럼 행동한다. 이후 조려의 딸은 장성하여 아버지의 유언대로 김시습을 찾아 나서 결국 결혼에 이르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김시습은 다시 정처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된다.

「노환 김처선」에서는 늙은 환관인 김처선이 연산군의 황음무도함에 염증을 느껴 사직하고 질녀와 단둘이 살아간다. 그런데 질녀 영옥이 거둥구경을 나갔다가 연산군의 눈에 띄어 채홍사에게 잡혀가자 김처선은 직접 연산군을 찾아가 충간을 하다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연산의 악행에 관한 역사적 서술은 많지만 작가는 연산의 수많은 악행에 저항하는 인물 중 김처선을 등장시켜 연산의 악행을 폭로함으로써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이면을 서술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상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여 당대의 독자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역사의 표면이 아닌 이면을 통해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16]

김윤회가 정리한 세 번째 유형의 야담에는, 혜원이 우연한 기회에 성종

16) 정부교, 「근대 야담의 서사적 전통과 대중 지향적 변모: 『월간야담』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98, 30면.

의 눈에 들어 내수비가 되었으나 미천하여 성종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가로 나가 여승이 되는 이야기(「미녀와 비련」), 연산이 세자 시절 글 읽기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끔직한 죽임을 당한 조지서의 아내가 신주를 지키는 이야기(「문장수난」), 전 판서 이인형의 딸이 이름도 없는 시골 선비 조원의 첩이 되었지만 허례와 가면에 쌓인 생활 대신 참다운 생활, 사람다운 생활을 찾아가는 이야기(「옥봉애가」) 등이 있다.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는 옛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경계하는, 아래와 같이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도 『월간야담』이 지향한 바를 유추할 수 있다.

> 대저 충의백의 후손으로 한번 시집 왔다가 죽기로써 맹세하고 두 마음을 두지 않아 부도를 온전히 지키었으니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요사이 경망한 신여성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일 줄 안다.[17]

『월간야담』은 대중의 취미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수행한 결과 '흥미진진한 탐정물, 연애물, 전기물, 사화'가 두루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있거나 순전한 작가의 창작이라는 양극단을 두고 다양한 성향을 띠는 작품을 연재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연애물이었다.[18] 연애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경우 올곧고 지조 있는 열부 열녀이거나 투기가 심한 여성인데 이들 사이의 갈등이 흥미진진한 연애서사를 이끌고 있다.

> 성종 공효대왕은 뛰어나게 어지시고 총명하신 어른이었다. 을축 11월 28일 열세 살의 어리신 나이로 위에 오르사 갑인 12월 28일에 승하하시

17) 장덕조, 「문장수난」, 『월간야담』 25, 월간야담사, 1936.7, 84면.
18)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호, 정신문화연구원, 2008, 125면.

> 기까지 실로 이십오 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닦으신 업적의 자취는 한이 없었다. (중략)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려는 이야기는 그 같은 세상에 드러난 선행이 아니고 지존의 만능한 자리에 있어 오히려 괴로운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민민한 날을 보내시던 왕의 숨은 슬픈 이야기다.[19]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일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야담은, 특히 왕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적은 「미녀와 비련」은 그 시작에서부터 비극적인 정조가 가득하다. 왕이 밤 미행을 나갔다가 북악산 밑 어떤 가난한 오막살이에서 발견한 관비의 딸 향화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게 된다. 영특한 재주와 뛰어난 미모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나 그 신분이 너무도 미천하여 승은을 입지 못한다. 향화는 사가에 있는 병신동생 걱정에 나날이 어두워지고 젊은 왕은 치기 어린 자존심에 마음을 잡지 못하는 향화를 결국 사가로 내보낸다. 향화가 궁을 나간 후 그녀를 그리워하는 임금과 병신동생마저 죽자 여승이 되어 전국 명승지를 돌며 임금의 천추만세를 비는 향화의 사랑 이야기는 슬프고도 장엄하다.

집안 좋고 인물 좋은 예학궁 안익이 원수 집안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상사병에 걸린다. 안익의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위를 속여 결혼을 시키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듯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부는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부부 지정은 밤을 틈타 그 사랑을 지속시킨다. 그러나 이 또한 발각되고 아내의 집안에서 벌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자 아내는 자결하기에 이른다. 어젯밤에 만난 아내가 자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익도 아내를 따라 죽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춘금여사의 첫 야담인 「상사몽」은 마치 원수 집안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한다.

장덕조 야담의 전편을 놓고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연애물

19) 장덕조, 「미녀와 비련」, 『월간야담』 14, 월간야담사, 1935.12, 97-98면.

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덕조 야담의 경우 본명과 필명 간의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다. 즉 장덕조가 본명으로 썼을 때와 춘금여사나 일파로 발표했을 때의 차이는 없고 모두 단편 분량의 한국야담들이다. 그런데 장덕조 야담 전체를 놓고 볼 때 연애물의 비중이 확연히 높고 그 이야기적 성취도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장덕조의 야담은 "확실한 이야기성과 로맨틱한 필치로 대중들의 심금을 건드릴 뿐 아니라 한편으로 죄와 악을 징계하고 의와 선을 취득하면서도 능청맞게 굴곡이 있어 부지불식간에 가슴을 태우고 주먹을 쥐게 하는 야담들이다."[20]

아름답고 비극적인 장덕조의 로맨스 야담은 장덕조가 1950년대 이후 펼쳐 놓은 대중연애소설과 멜로풍 역사소설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21] 그 서사적 증거가 야담 「묘상의 광객」과 역사소설 『광풍』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금여사의 「묘상의 광객」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세속을 등지는 김시습이 등장한다. 본 야담은 당대 정치에 대한 환멸로 기인 행사를 하는 김시습과 함께 운명과도 같은 인연을 이어가는 조려의 딸이 중심이 된 로맨스 야담이다. 김시습의 이야기는 장덕조의 첫 역사소설인 『광풍』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1953년 『동아일보』에 200회나 연재된 작품으로 김시습을 주인공으로 하여 횡포한 세조 치하의 역사적인 비극을 그렸다. 역사적 사실을 그리는 중에 오직 의를 위하여 초야에 묻혀 기인으로 살아가는 김시습의 행적과 함께 기약 없는 낭군을 20여년이나 기다리는 소옥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그려진다. 작품의 주요 인물이나 플롯이 1937년에 쓰인 「묘상의 광객」과 정확히 일치한다. 장덕조의 역사소설은 이전 시대에 쓰인 야담을 모티프로 역사적 사실을 풍성히 첨가하고 스토리를 보강하여 1950년대 새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20) 「편집후기」, 『월간야담』 33호, 월간야담사, 1937.8, 100면.

21) 이 외에도 춘금여사가 쓴 야담 「벽오동 심은 뜻은」에서 기생 벽동선의 이야기는 장덕조 대중역사소설을 대표하는 『벽오동 심은 뜻은』의 소춘풍으로 이어진다.

4. 장덕조 야담 창작의 의미

장덕조는 1932년 19세의 나이로 『개벽』에 기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이태준의 추천으로 『제일선』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여점원에게 매춘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여점원들의 투쟁'[22]을 그린 단편 「저회」[23]를 발표한다. 이후 장덕조의 작품세계는 "인텔리적 명랑성과 우울성과 퇴보성을 아울러 가진 모더니즘에 흐르는 경향"[24]이 있다고 평가 받았거나 "무수한 여성들의 주류 없는 심신의 부동성에 대한 반동의 생산"[25]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어느 여류소설가보다도' 믿음성을 갖춘 작가라는 찬을 받았다. 여자전문 졸업, 여기자, 여류작가 등 당시 근대성의 지표를 배지처럼 달고, 전형적인 인텔리성과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을 썼던, 20세 전후의 장덕조는, 왜 야담을 쓰게 되었을까.

장덕조는 1914년 경북 경산군 자인면 속칭 순월마을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대구・경북권은 예로부터 양반 관료주의라 할 가부장적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전국에서 개화의 속도가 가장 느렸을 뿐 아니라 산업화의 진전이 늦었다는 것은 완고한 보수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덕조가 태어난 순월마을 또한 무속 일색인 산골마을이었다.

그나마 아버지 장재수는 자인에서도 신문화, 신문명을 가장 먼저 수용한 개화인이었으며, 천석 재산을 가진 이 고을 제일의 부자로 알려졌다. 덕조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서당에서 공부했는데, 이때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문을 일찍 깨쳐 천재소녀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

22) 배상미, 「제국과 식민지의 백화점과 여성노동자 -미야모토 유리코의 「다루마야 백화점」과 장덕조의 「저회(低徊)」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8권, 비교문학회, 2016, 71-99면.

23) 장덕조, 「저회」, 『제일선』, 개벽사, 1932.8.

24) 홍구,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삼천리사, 1933.3.

25)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류작가론」, 『여성』, 여성사, 1940.9.

마을에 조그마한 학교를 세울 정도로 교육과 문중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는 남다른 재주를 타고난 딸에 기대가 컸던 셈인데, 신뢰에 찬 아버지의 기대에 장덕조는 여자로서 마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서울 유학생이 되었고 대학공부를 한 여자도 인근 마을을 포함해 그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장덕조는 1932년 등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의 거부로 알려진 박명환과 결혼하였다. 하지만 포장된 이야기와 다르게 한 번도 생활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독립문 근처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 "사람이 대처로 나갔으면 성공을 해서 돌아와 고향 땅을 개혁해야 하는 거야. 길을 넓히고 다리도 놓고 고향사람들을 잘 살도록 해 줘야 한다. 여자라 해서 그런 일을 못하란 법은 없어." (중략)
>
> 그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신학문을 공부했고 봉건적인 도덕이나 인습을 타파하려는 자기주장을 지닌 듯하면서도 강렬한 현시욕도 없고 불같은 생명력의 분출도 없이 단지 그 감정과 언동만이 정상한 궤도에서 벗어난 듯한 딸.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다듬어 화려한 개화를 눈앞에 보여주지도 못하는 딸.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은 소설을 쓰는 것과 아이를 낳은 것뿐이었다.[26]

여자 아이지만 장차 가문을 빛낼 것이라는 아버지의 자랑에 미치지 못하게, 장덕조는 친정으로부터 적지 않은 재산을 받았으나 남편이 사기를 당해 이를 모두 날리고 아버지의 임종 때 고향에 갈 차비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가 여류작가로서는 특이하게 야담에 손을 댄 것은 다분히 고료로써 호구지책을 해결하려는 뼈아픈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27]

26) 장덕조, 「체념」, 『일곱장의 편지』, 주우, 1981, 97-98면.
27) 이강언, 「장덕조의 생애와 문학」, 『나랏말쌈』 8, 대구대 국어교육과, 1993, 21-24면.

당시 장덕조는 현모양처식 직업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살림 잘하고 남편을 잘 섬긴다는 칭찬이 자자했고 수필 하나를 내놓는 데도 반드시 남편의 검열을 받고야 안심하고 내놓는다고 했다. 동료 문인한테는 '엄마 문사'라든가 '현숙한 아내', '착한 어머니'란 인상을 심어줄 정도로 풍설과 시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장덕조의 초기 단편소설이 보여주는 문학세계 또한 삶과 다르지 않았다. 여성에 대해 전혀 차별의식이 없었던 유년시절 가정환경과 근대적 여성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근대적 직업여성으로서 기자 역할을 수행했던 그였지만, 그는 오히려 전통주의적 세계와 친연성을 드러낸다.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살이에 힘쓰고 자녀를 출산하고 투기를 금하며 남편은 공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충실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부부애를 바탕으로 한 부부역할론은 전통적 젠더 역할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유교주의적 세례를 받은 유년의 경험과 더불어 손쉽게 야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지주의 집에서 태어나 1920년대 여학교 교육을 받고 근대의 식민지 도시화 과정과 마주친 장덕조는 여러 글에서 자유의지와 생명의 정열을 꿈꾸나 향락적인 모던 풍속을 시종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무력한 조선 남성을 그린 동시에 여성운동가의 이데올로기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는 아씨라 불리면서 현모양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전통적 여성인 동시에 잡지와 신문 지면을 공적인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공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대의 낙오자 신세를 면하고 신여성이라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글쓰기를 사회참여 방식으로 택하였으나 체제의 대립 면에서 사회 비판적 투사나 운동가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는 작가 개인의 특수성이자 성격이지 시대적 착오적 발상이라고 굳이 비하할 이유는 없다. 여전히 이 시기는 전통과 근대의 패러다임이 충돌 길항하는 시대였고 박화성, 강경애처럼 글쓰기를 했던 작가도 있고 장

덕조처럼 글쓰기 하는 작가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제2기 여성작가가 다원성이다.

5. 나오며

본고는 장덕조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 시원을 식민지 시기 발표한 야담에까지 역상하였다. 장덕조가 식민지 시기 발표한 소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성의 생활과 감정에 밀착되어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서사화한 단편소설의 수만큼이나 『월간야담』에 발표한 야담의 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여자전문 졸업, 여기자, 여류작가 등 당시 근대성의 지표를 배지처럼 달고, 전형적인 인텔리성과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을 썼던, 20세 전후의 장덕조는, 왜 야담을 쓰게 되었을까. 이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장덕조가 『월간야담』에서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다작의 야담작가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보다 작품 수가 많은 춘금여사, 일파 모두 장덕조의 필명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월간야담』에서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많은 야담을 집필한 작가는 장덕조인 것이다.

장덕조 야담의 특징은 연애물의 비중이 확연히 높고 그 이야기적 성취도도 높다는 것이다. 장덕조의 야담은 확실한 이야기성과 로맨틱한 필치로 대중들의 심금을 건드릴 뿐 아니라 한편으로 죄와 악을 징계하고 의와 선을 취득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대중의 가슴을 태우고 주먹을 쥐게 하는 야담들이다. 아름답고 비극적인 장덕조의 로맨스 야담은 장덕조가 1950년대 이후 펼쳐 놓은 대중연애소설과 멜로풍 역사소설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장덕조는 아씨라고 불리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역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유교주의적 세례를 받은 유년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야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단편소설 또한 전통적 젠더 역할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작가의 삶 또한 문학세계와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 결혼 이후 원고료로써 호구지책을 해결하려했던 뼈아픈 속사정은 다작의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는 전통과 근대의 패러다임이 충돌 길항하는 시대였고, 장덕조는 신여성 담론을 생산해 내는 대중지의 일원으로 출발하였지만 야담 쓰기를 통해 한문 세대의 문화 활동에도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표로 대신함)

월간야담	장덕조	춘금여사	일파/일파생
6호, 1935.3.			표지
7호, 1935.4.			표지
8호, 1935.5.			표지
9호, 1935.6.			표지
10호, 1935.7.			시조십수(時調十首)
11호, 1935.8.			구회(口繪)
12호, 1935.9.	때는 눈앞에(전편)		표지
13호, 1935.11.	광란의 무희		표지
14호, 1935.12.	미녀와 비련		표지
15호, 1936.1.	조반의 비애	상사몽	표지
17호, 1936.3.	만파식적	춘소감별	표지
19호, 1936.6.	벌수발복		표지
20호, 1936.7.	기인 김진사	충효	표지
21호, 1936.8.	금주삽화	용강의 어옹	표지, 피 묻은 부채
22호, 1936.9.	돈 잘 쓰는 사위	몽조	표지
23호, 1936.10.	솥 속에 돈 꾸러미	두 친구	표지, 여색화인
24호, 1936.11.	머리위에 도끼날	열열장부	해묵오백동
25호, 1936.12.	문장수난	인색한 장인	교동의 운성
27호, 1937.2.	순정의 호떡 두 개	기지가 활인	보수
28호, 1937.3.			충복설원
29호, 1937.4.	맹부를 구출코저	패낭의 비상	허실
30호, 1937.5.	옥봉애가	묘상의 광객	표지, 벌레 먹은 떡잎
31호, 1937.6.	양봉승공	미녀대평기	고도의 의인
32호, 1937.7.		결사고충:노환 김처선	비상유언:여배물복과거
33호, 1937.8.	원앙가연:의사요확탄	혈루애화:정녀 홍루몽	표지
34호, 1937.9.			유협백수
35호, 1937.11.		벽오동 심은 뜻은	
36호, 1937.12.		장력당이문	
37호, 1938.1.		의기남아:숙명? 인연?	
38호, 1938.2.			
39호, 1938.3.		신문	표지
40호, 1938.4.			
41호, 1938.5.		지성달의:감천의 정성	

42호, 1938.6.			
43호, 1938.7.			친구와 돈 석량
44호, 1938.8.			목은의 사희시, 빈군수득전법
45호, 1938.10.			하담의 강정
46호, 1939.1.			풍연전
47호, 1939.2.			
48호, 1939.3.			관중장물
49호, 1939.4.			
50호, 1939.5.			묘공보은
51호, 1939.6.			
52호, 1939.7.			
53호, 1939.8.			단편물: 시하관오시발복
54호, 1939.9.			
55호, 1939.10			충혼의 죽엽

장덕조, 『일곱장의 편지』, 주우, 1981.

2. 논문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호, 정신문화연구원, 2008, 130-129면.

권기성, 「근대 야담 작가 연구의 외연 확장과 신선의 전환-『월간야담』의 작가군과 '장덕조'」, 『동반한문학』80, 동방한문학회, 241-275면.

김양선, 「[한국여성인물사전] 장덕조」, 『이투데이』, 2017.11.29.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김윤회, 「『월간야담』에 나타난 야담의 양상과 대중서사로서의 의의」, 고려대 석논, 2012.

신상필, 「야담 전문잡지 『월간야담』·『야담』의 운영과 작가층의 구성 양상」, 『남명학연구』 53집, 경남문화원, 2013, 205-230면.

이강언, 「장덕조의 생애와 문학」, 『나랏말쌈』 8, 대구대 국어교육과, 1993, 21-24면.

정부교, 「근대 야담의 서사적 전통과 대중 지향적 변모: 『월간야담』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98.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여

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회, 2012, 485-516면.
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연구회, 2012, 267-288면.
홍구,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삼천리사, 1933.3.

<Abstract>

The identity of the female yadam writer and the meaning of traditional writing by Monthly Yadam

Jin, Sun-Young

This paper starts with an interest in Jang Duk-jo's historical novels and reverses its origins to Yadam. At that time, Jang Duk-jo was a symbol of modernity, including women's university graduation, female journalist, and female writer. Why did you write Yadam?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t is surprising that Jang Duk-jo was a Yadam writer who wrote many works. In addition, Chun-geum Yeo-sa and Il-pa the fact that both are the pen name of Jang Duk-jo are the authors who wrote the most yadam in Monthly Yadam.

The characteristic of Jang Duk-jo Yadam is that the weight of romance is high. Jang Duk-jo's Yadam shook the hearts of the public with good narrative and romantic sentiment through the victory of goodness and the destruction of evil. The beautiful and tragic romance Yadam would have been the seed of Jang Duk-jo's popular love story and melodic historical story since the 1950s.

Jang Duk-jo grew up in a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local environment, and his childhood experience of being baptized in Confucianism naturally moved into the world of Yadam. Jang Du-jo's short stories are based on traditional gender role theory, and the artist's

life is not different from the literary world. In addition, the situation of trying to solve poverty as a plaintiff after marriage may have been the reason for writing several works.

The 1930s was a time of conflict antagonism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paradigm, and Jang Duk-jo started as a member of the masses producing modern girl's discourse, but he also contributed to cultural activities of the Chinese generation through writing Yadam.

Key words: Jang Duk-jo, Chun-geum Yeo-sa, Il-pa, Monthly Yadam, female Yadam writer, traditional writing

투 고 일 : 2019년 10월 25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